

사회

쓰레기 감당 못하는 광주 '표준 휴지통'

가로 42cm·세로 30cm·높이 90cm로 너무 작고 재활용 대책도 없어

도심 미관 해치고 악취에 시민 고통 호소

광주시와 자치구들이 거리 곳곳에 설치한 휴지통(사진)이 턱 없이 작아 쓰레기가 넘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각종 재활용품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어 자원재활용을 위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표준디자인 휴지통' 373개가 광주 지역 버스정류장과 인도 등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설치된 휴지통 1개당 가격은 40만5000원으로 설치에는 총 1억5000만원(시비 30%·구비 70%)이 소요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2억원 가량을 들여 휴지통 등 8가지 종류의 표준 디자인 공공 시설물을 개발, 각 자치구가 지역내 곳곳에 설치중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개발한 휴지통의 용량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

주철로 제작된 표준디자인 휴지통은 가로 42cm·세로 30cm·높이 90cm로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적합한 크기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곳곳에 설치된 휴지통은 수시로 쓰레기가 넘치거나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여름철에 접어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악취에 시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최모(여·29·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이런 아침이나 늦은 오후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휴지통이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준디자인 휴지통의 쓰레기 투입구가 1개 뿐이어서 각종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섞인 채 버려지고 있어 재활용품 활용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환경미화원을 통해 표준디자인 휴지통에 쌓인 쓰레기를 비우기만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재활용품 분류수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표준디자인 휴지통의 작은 용량과 재활용품 처리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휴지통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경유 대신 등유 넣어 유가보조금 빼들린

화물차주 무더기 적발

해남경찰

주유소 주인과 짜고 자신의 화물차에 경유 대신 보일러 등유를 넣은 뒤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남경찰은 22일 김모(48)씨 등 화물차주 14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H주유소 주인 노모(4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화물차주 148명은 노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

를 주유 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000만원까지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화물차주들은 이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광주 RCY 회원 광주천 가꾸기 캠페인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광주천 양동교 인근 둔지에서 광주 청소년직업사(RCY) 회원들이 입단 선서 후 광주천 가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들간 차량 30여대 털려 900만원 피해

익산경찰, 수사 나서

익산시내에서 차량 30여대가 한꺼번에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익산시 부송동 공설운동장과 인근 여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0여대가 잇따라 털려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에도 공설운동장 인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털려 현금과 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같은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 함양군수 보해저축銀 비리 의혹 영장 청구 檢, 정·관계 수사 확대

보해서 3000억 대출 리조트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보해저축은행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사랑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돼 정·관계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2일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비밀수수)로 전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군수는 재임 말기인 지난 해 초 리조트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7층 규모의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을 포함한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투자비 3000억원 전액을 보해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군수가 리조트 인·허가 등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PF 대출과

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인사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이철우 현 함양군수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가져 온 컴퓨터 등을 정밀 분석해 이 군수도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명간 이 군수를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동시다발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로비 장구역할을 한 브로커들을 잇따라 검거해 이번 수사가 저축은행과 감독기관을 넘어 정·관계를 조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광주지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씨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42억원을 담보 없이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금의 사용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신안군 개발사업에 3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합뉴스

나원침 (8319) 김종두



70대 노인 여객선서 투신

지난 21일 밤 9시40분경 목포시 향동 목포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한 여객선에서 A(70)씨가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목격자 B(47)씨는 "A씨가 여객선에서 5m 아래 바다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목포해양경찰은 "제주를 출발,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에 A씨의 일행은 없었다"는 여객선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이들 결혼식 찾아온 남편 여친과 몸매

○...아들의 결혼식에 평소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하객으로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여성이 머리채를 잡고 싸워 경찰서를 찾았다.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여·57)씨는 지난 21일 밤 8시10분경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주차장에서 B(여·58)씨와 머리채를 잡는 등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남편과 5년전 재혼한 A씨는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B씨가 10일 전 아들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할 일을 두고 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A씨는 "평소 남편이 나보다(B씨에게)잘해주는 것 같아 질투가 났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계모임서 음식제공 선거 자원봉사자 징역형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2일 자신이 지지하는 구청장 후보를 위해 계모임을 갖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56)씨와 장모(4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5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은

공정성이 더 요구되는 재선거 기간에 범행해 엄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였던 고씨와 장씨는 선거를 앞두고 최씨가 회장을 맡은 계인 20여명을 모은 뒤 음식값 5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찰차 훔쳐 달아난 40대

광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민섭 판사는 22일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

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1시45분경 부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순찰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별거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윤씨는 광주와 서울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망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순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병원지구

※ 10층 신축건물연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헬민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빌딩, 대인동 소행사건-편)

주인직접거래

고흥바닷가 신축항토집

큰방3개 넓은 텃밭 300평 조망권최고 계곡물흐름 전세 5천만 3천만원

해수절임공장 임대

맑은바닷물 (김치공장도최적)

고흥바닷가 약100평 전세 1천만원

고흥-광주간 고속도로 공사중 약50분거리임

고흥 대천리 해수욕장옆

매실, 유자밭 3천평 당5만원 (펜션,모텔 부지 최적)

향토주택 짓는법

무료로 배우실 분

문의 ☎ 010-8200-5662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대지: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건폐율 60% 유통단지

▶매매가격: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8.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추소(D) 대산프리모 김씨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50만원

가격파괴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